

Atmosphere V.

문제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십시오

1. 어려움의 무게감을 느끼는 곳은 마음이다.

어려운 일이 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은 모든 인생에 주어진다. 어려운 일이 없는 인생은 없다. 성경은 어려운 일이 없다고 하지 않는다. 어려운 일이 있음을 인정한다. 신앙은 어려운 일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어려운 일을 느끼는 곳이 어디인가? 외부적인 어려운 일을 느끼는 곳은 '마음'이다. 어려운 일은 너무나 실제적이다. 보이지 않지만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그것의 무게가 실제의 무게감으로 느껴지는 곳이 바로 '마음'이다. 문제는 어려운 일을 대하는 태도이다. 성경은 '인간의 삶에 있는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가르친다. 그래서 신앙은 어려움을 이기게 한다. 똑같은 어려움인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태도, 즉 '마음가짐'이 다르다. 반대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의 무게를 그대로 마음에 느낀다. 그래서 힘들어한다.

2. 잠식 - 문제에 파묻히다.

어려운 상황과 문제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침범한다. 그래서 문제만 보이게 한다. 문제가 커보이는 것이다. 문제를 마음에서 다스리지 못하면, 문제앞에 선 나는 지극히 작은 존재일 뿐이다. 그리고 문제는 점점 커지는 것이다. 결국은 마음이 문제에 완전히 파묻히게 된다. 잠식 당하게 된다. 그 때부터 믿음의 사고, 영적인 사고는 완전히 정지된다.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꾼의 마음이다.

[민수기 13:31-33]

31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32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 본 그 땅은,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33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정탐꾼들의 마음을 보라. 그들의 정탐내용은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정탐을 하며 그들 앞에 있는 어려운 난관을 보았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그 문제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문제에 완전히 파묻힌 상태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1%도 문제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3. 마음을 공부하라.

신앙이 좋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이다.

[잠언 4:21, 23]

21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2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3:1]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성도가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지혜서인 ‘잠언’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강조한다. 잠언 4:23에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강조한다. 이것은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내 영을 살게하는 영적인 사고, 믿음의 사고를 전혀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이 땅으로부터 오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 낙담, 좌절, 우울감,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4. 마음을 못 지키는 현대인들

언제나 불안하다. 불안한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출한다. 그래서 주변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 정탐꾼들의 불안함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불안하게 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마음이 문제에 완전히 잠식당했다.

[민수기 14:1-3]

1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2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3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문제에 잠식당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다. 그들이 노예생활을 했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한다.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문제에 잠식당한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5.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자. 예수님은 문제에 잠식당해서 숨도 쉬지 못하는 인간들을 향해 말씀 하셨다.

[마태복음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문제에 잠식당한 인간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다. 다른 이유가 아니다. 문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사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분리로부터 온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형상이란 의미는 무엇인가? 닮았다는 것이다. 닮았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말한다. 인간의 궁극적인 안정감은 자녀가 부모 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안식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든 것이 바로 ‘죄’이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존재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다. 그 욕망이 선악과를 먹게 했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분리를 느꼈고,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했다.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의 모든 불안과 어려움의 이유는, 아버지와의 분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탕자의 회복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해결되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문제를 알고 계셨다. 인간의 삶이 탕자처럼 완전히 문제에 잠식당하고 있는 모습을 아셨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마음안에 어떤 평안도, 쉼도, 안식도 없다는 것을 아셨다. 그들의 마음안에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는 것을 아셨다. 인간이 문제에 완전히 잠식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앳모스피어(영적공기)’를 변화시키셨다. 마른뻐가 살아난 것처럼 죽음의 공기를 생명의 공기로, 안식의 공기로 변화시키셨다.

6.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마음의 안식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내 마음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이 있느냐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멈추어서서 마음의 안식을 찾아야 한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쉼과, 회복과, 자유의 공기를 찾아야 한다.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안식을 얻는다.

7. 예수님의 마음으로 젖어드는 우리의 마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주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께 나아가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환' 되는 것을 말한다.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원리가 있다. '젖어드는 것이다'

신앙은 기계적인 학습이 아니다. 신앙은 '관계' 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한다. 관계가 깊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젖어든 상태' 를 말한다. 제자훈련 코스를 끝냈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젖어들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안에 있는 안식, 평강, 자유, 기쁨, 소망, 용기, 힘 등으로 내 마음을 적셔야 한다.

8.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젖어들게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적시느냐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다.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로부터 오는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로 마음이 젖어드는 것이다. 예수님이 쉬를 주겠다고 한 것은,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에 더 이상 마음을 젖어들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마음으로 네 마음을 젖어들게 하렘. 나의 쉬를 사모하렘" 이라는 메시지이다.

9. 내 마음을 적시고 있는 것이 어떤 세상의 짐인가를 생각하라.

주님의 짐은 가볍다. 그러나 나의 야망, 육적인 짐은 무겁다. 주님의 임재가 그 마음을 지키게 할 것이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세상의 짐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준다. 혼자 서있기도 힘들 정도로 무겁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서와 건강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의 임재안에 잠기라. 아버지의 마음안에 잠기라. 주님의 임재안에 잠기면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소망의 음성, 따뜻한 음성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때 우리의 영적인 사고, 믿음의 사고가 비로소 활성화 되기 시작한다. 주님의 임재에 잠길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의 메시지가 들린다

그 음성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적시라. 그것이 문제에 잠식당하고 있는 나의 영적공기가 변화되는 유일한 길이다.